

광주 유실물 매년 2만건...보관 창고는 '포화'

절반만 주인 찾았...나머지 폐기 서부서, 마트·터미널 밀집 3배 "재활용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광주 지역에서 매년 2만건 이상의 유실물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실물을 담당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고, 습득 물의 절반 정도만 주인을 되찾고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12월 27일) 습득물 건수는 총 9만5,598건이며, 2019년 2만4,923건, 2020년 2만1,788건, 지난해 2만3,144건 등 매년 2만건 이상의 유실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하루 평균 80건 이상 분실물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인계된 유실물은 4만8,158건(50.3%)으로 절반 정도만 주인을 되찾고 있다. 접수된 유실물도 다양하다. 올해 기준 지갑이 7,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귀중품 2,258건, 가방 862건, 의류 701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음식물, 신분증, 카드 등 크고 작은 분실물들은 1만4,161건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유실물이 발생하지만 처리하기

는 쉽지 않다. 분실물은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에 따라 6개월간 보관해야하며, 음식물과 물건이 훼손 우려 등 매각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원인이다. 결국 대부분의 유실물은 최소 6개월 동안 창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경찰서의 분실물 보관 창고는 매일 포화 상태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광주시 5개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유실물 현황은 ▲동부 548건 ▲서부 2,456건 ▲남부 610건 ▲북부 812건 ▲광산 1,418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부서 관내는 터미널과 대형마트 등이 밀집됐고,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유실물이 타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담당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9월 5개 경찰서가 6개월 이상된 유실물을 일제히 폐기했지만, 벌써 절반 이상 쌓인 것이다. 하지만 각 경찰서마다 담당 인력은 1명으로 한정돼 있어 업무 효율과 피로도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실물이 신분증이 있거나 주소 파악이 가능한 경우 직접 주소지로 배송을 하지만, 대부분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자

리를 차지하는 상황이다"며 "대부분 민원인들이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지 못해 유실물을 되찾아 주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실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순 폐기가 아닌 기부 등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관련법은 일부 유실물을 제외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하며, 매년 수천개의 유실물이 단순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경찰서 한 관계자는 "가방 내용물이 가끔 음식물이 담겨 있지만, 법적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봉사단체 등에서 기간이 지난 유실물을 활용하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코로나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500명을 넘어선 2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동강대, 4개 학과 학사학위 취득...전공심화 과정 인가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오는 30일까지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한 전문학사자들이 취업과 동시에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까지 가능하다. 동강대는 지난 2019년 임상병리학과, 2021년 유아교육학과에 이어 2022년 교육부로부터

보육복지학과와 AI융합기계학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동강대는 총 4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공심화 과정 신입생 모집에서 3년제 과정인 임상병리학과와 유아교육학과는 각각 4학년 20명을 선발하고 졸업할 때 임상병리학과와 유아교육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2년제인 보육복지학과와 AI융합기계학과는

3학년 15명씩을 뽑고 2년 과정을 통해 각각 사회복지학과와 공학사 학위를 준다. 앞으로 동강대는 전공심화 과정 운영 학과를 확대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강대는 오는 1월12일까지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등 4개 계열, 22개 학과에서 정시모집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간호학과를 포함, 22개 전제학과 모두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황애란 기자

5·18조사위, 암매장지 흔적 '오리무중'

18곳 사전 조사작업 진행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계엄군이 증언한 유력 암매장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광주와 전남 곳곳에 있는 5·18 당시 암매장된 시신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 총 18곳에 대한 사전 조사작업이 진행됐다. 조사 대상지는 ▲동구 옛 너릿재 터널(화순 방면 입구) 주변 야산 ▲옛 광주교도소 맞은편(현 각화동 광주화물터미널 뒤편 공터) 부지 등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하급 간부와 병사 등이 직접 암매장을 했다고 증언한 곳이다. 이중 너릿재 터널 부근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계엄군 총 4명이 중복 진술을 하면서 암매장자 발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옛 광주교도소

맞은편에도 당시 7공수여단 소속 장병들이 암매장을 했다는 중복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계엄군의 증언과 현장 입회에도 불구하고 18곳 중 어느 곳에서도 유골과 유류품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조사위는 이와 관련 5·18 기간과 직후 계엄군을 투입한 부대 내에서 운용된 일명 '사체처리반'이 개입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사위는 11공수여단 소속 장병들을 통해 '사체처리반 4개 팀이 5·18 직후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실제 주남마을에서는 뒷산에 주둔하던 11공수여단으로부터 사체처리반이 운용돼 암매장자들을 수습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다. 조사위는 사체처리반의 실체를 확인, 암매장 시신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장우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취임

"교육 가족 목소리 청취"

광주시교육청은 신임 부교육감에 장우삼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59·사진)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장 부교육감은 목포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 37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부경대 사무국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교과부 사

학감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장 부교육감은 "고향 지역에서 공직의 마지막 막을 보낼 수 있어서 뜻 깊다"며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발맞춰 지역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 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 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 운암동 (아파트) 벽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

부동산 사무실 (공동) 쓰실분

상무지구

- ▶ 상무지구 사무실
- ▶ 부동산 사무실, 개인사무실
- ▶ 모든 사무실 가능

(부동산, 경매, 기타정보 공유 가능)
(보 100만, 월 30만) 시비 없음

010-6670-9800